

## [2017 통일영화 제작지원] 심사 총평

제 3회 통일영화 제작 지원에 응모한 작품은 108편이었습니다. 개중 다큐 26편, 극영화 82편. 모두 소중한 작품들이었고, 응모해주신 모든 감독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올해 다큐멘터리 영화들도 처음 지원하게 되었지만, 해가 갈수록 통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일동은 모든 작품들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읽었고,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년보다 더 고른 수준의 향상이 있다는 데 의견을 일치할 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루어지는 탈북자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소재 이외에도 참신한 주제와 도전의식으로 가득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작품들을 전부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쓸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난망한 심사과정에서도 전통적 주제에 천착하기보단 새로운 소재와 형식적 변화로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그 참신성에 주목하고, 분열과 절망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희망과 낙관을 길어 올리는 작품들을 지원하는 것이 통일영화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통일영화 제작 지원에서 '평화통일대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김량 감독의 <실향 - 그리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감독 자신이 실향민 2세로써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망각되고 있는 '실향민'이라는 정체성을 영화적 언어로 구현해내려는 그 안간힘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통일미래금상'은 최미경 감독의 <있어도 없었던>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정착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 유랑하고 배회하는 풍경을 날것의 감성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미 탈북 청소년들을 다룬 영화들이 상당하지만, 외부의 온정어린 시선으로 담아내려는 기존의 시도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게 주된 심사평이었습니다. 아울러 단편 '평화통일대상'은 '<단 하나의 확정기>', '통일미래금상'은 <첫눈>, '평화희망은상'은 <별똥>에 돌아왔습니다. 확정기, 개성공단의 편의점, 무인기 같은 새롭고 독창적인 소재로 남북한의 문제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섬세하게 직조해낸 단편 수작들입니다. 영화의 힘은 여전히 상상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심사위원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통일과 평화라는 광범위한 주제 의식을 놓치지 않은 채 새로운 상상력으로 기민하게 영화적 순간을 창조해낸 수상작 감독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안타깝게 지원 대상이 되진 못했지만, 어렵게 출품해주신 모든 감독님들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7 통일영화 제작지원] 심사위원장 이송희일